**KT 5대 플랫폼 사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플랫폼은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 플랫폼 비즈니스는 강비한 가입자 수에 의해 영향력이 결정되는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하는 비즈니스다. 이 네트워크 효과는 ‘멧칼프의 법칙’으로 잘 설명된다. ‘멧칼프의 법칙’이란 기기(혹은 가입자)의 수가 일정 수준을 지나기 전까진 가치창출이 미미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결국 승자독식에 이른다는 이론. 이에 아마존은 자사의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 고객에게 아마존 스킬스와 API를 공개해 생태계 확장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음. 아마존 외도 플랫폼 사업자를 지향하는 글로벌 ICT 기업들 대부분이 자신들이 구축한 플랫폼으로 개인 및 기업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음.  
KT 역시 미래 먹거리는 네트워크에 기반한 플랫폼 사업이라는 판단 하에 단순 통신사에서 5대 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함. 5대 플랫폼은 미디어, 스마트에너지, 기업 공공가치 향상, 금융거래, 재난안전 등이다.

1. **스마트에너지**  
   KT가 개발한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의 핵심은 ‘에너아이즈’다. 에너아이즈는 에너지와 아이즈(Eyes)의 합성어로, 건물의 에너지 건강상태를 검진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처방을 제공하는 서비스. IoT 기술을 건물에 결합해 에너지 절감을 위한 각종 솔루션을 제공한다. KT는 우리나라 연간 전력 사용량의 약 0.5%를 자치할 만큼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업. 에너지 절감 노하우와 AI 기술, 에너지 전문 인력 및 24시간 365일 관제역량 등을 집결해 스마트에너지 플랫폼(KT-MEG)을 구축했다.  
   **KT-MEG**의 핵심은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빅데이터 분석엔진 ‘e-Brain’이다. ‘e-Brain’은 시간/요일/기상 등의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건물의 에너지 소비패턴을 분석해 절감요소를 도출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전력사용량 예측은 물론 최고점에 달하는 피크 예상 시간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에너지사용량관리, 전력피크관리 등을 통한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 사업부 정비  
   KT는 미래융합사업추진실에서 진행되던 에너지 사업을 ‘기가 에너지(GiGA energy)’라는 브랜드로 통일, 상품 체계를 정비했다. 전기차 충전소의 위치를 알려주고 예약을 도와주는 전기차 플랫폼 명칭은 기존 ‘차징메이트’에서 ‘기가 에너지 차지(Charge)’로 바뀌고, 에너지를 관리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 ‘에너아이즈’는 ‘기가 에너지 매니저’로 불리게 됐다. 여이게 그동안 서비스 명칭이 없었던 에너지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는 각각 ‘기가 에너지 DR’과 ‘기가 에너지 젠(Gen)’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여러 사업들을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정비한 것은 본격적인 활동에 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전기차  
   KT는 최근 스마트 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힌 가운데, 전기차 충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곧 상용화하는 등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KT는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 3월 국내 통신사 가운데 처음으로 전기차 충전사업자 지위를 획득하고, 충전사업을 추진해 왔다. 회사는 이후 올해 환경부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운영 전문사업자로 선정돼 전국에서 완속 충전기 설치 신청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KT는 현재 급속, 완속형 고정식 충전기 구축 사업을 하고 있다. 일례로 회사는 서울 시내 세 곳에서 공중전화 부스를 활용한 공공형 전기차 충전기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공중전화 박스 하나를 전기차 충전부스로 바꿔 길에서 차를 대고 플러그를 연결하면 충전을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전기차를 도입하는 렌터카와 카셰어링 등 법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충전기 구축 뿐 아니라, 충전설비를 직접 관리·운영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사업자들을 위해 온라인 소프트웨어서비스(SaaS) 형태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KT는 이를 통해 차량 연계 서비스, 통신, TV와 같은 다양한 결합서비스도 선보인다는 계획. 특히 KT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플랫폼과 전기차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전기차 충전 전용 모바일 앱도 곧 선보인다. 앱 이용자는 사물인터넷(IoT) 위치기반 기술과 모바일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가까운 충전소를 안내받을 수 있고, 예약 기능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충전할 수 있다고 한다.  
   - 에너지플랫폼 사업의 경쟁사는 한전  
   KT가 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춤으로써 한전과 경쟁구도를 갖게 되었다. 전체 국가 전력량의 수요 공급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한전의 목표라고 하면, KT는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표. 한전의 경우 데이터를 15분 간격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하기엔 다소 늦을 수 있다. 반면 KT의 경우 5분마다 데이터를 받아 피크가 발생할 것 같으면 미리 알려줘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2. **금융거래**KT그룹의 금융 사업의 주력은 BC카드. 추가로 올해 서비스를 시작한 ‘케이뱅크’가 있다. 기존 시중 은행들도 모바일 거래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고, 각종 페이 등 간편 결제 서비스, 토스, 카카오 등의 간편 송금 서비스 등 핀테크 사업모델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으나 시장에서 멀리 앞서나가는 기업은 크게 눈에 띄지 않음. 이런 상황에서 KT는 KT의 유무선 가입자와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무기로 이 시장에서 경쟁할 것으로 보임. 기존 결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편 앱들은 금융 및 카드사들과 제휴 협력을 통해 성장해 왔다. 이에 비해 제 1금융권에 진입한 케이뱅크와 직접 협력하고, BC카드의 노하우를 살려 네트워크 사업자의 강점을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블록체인  
   KT는 KT엠하우스와 블록체인 기반 금융거래를 위한 MOU 체결. 이번 협약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공동 연구하는 한편 금융거래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KT엠하우스는 오는 11월 시범서비스를 목표로 KT의 블록체인 기술기반 가상화폐 플랫폼 ‘K-코인’을 자사 모바일 상품권 ‘기프티쇼’ 서비스에 적용, 각종 포인트의 발행과 적립·결제가 가능한 자체 포인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KT는 특히 포인트에 더해 내년 상반기까지 상품권, 가상화폐 등 다양한 전자화페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대 적용하고 고객간 직거래까지 가능한 차세대 금융거래 플랫폼으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이다. KT는 지난 2015년부터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운영,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전자서명 이미지 관리시스템’을 개발, 높은 보안성과 확장성을 바탕으로 금융과 데이터유통에 최적화 된 자체 블록체인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 인공지능 금융서비스  
   KT는 미래에셋대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전략적 제휴 체결을 통해 KT ‘기가지니’의 음성인식과 인공지능 기술에 미래에셋대우의 금융정보를 접목시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음성인식을 이용한 주가 및 지수조회, 시황 정보, 종목 및 금융상품 추천 등이 우선 적용될 예정이며, 비대면계좌개설 서비스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고객편의 서비스까지 확대할 방침.
3. **미디어**KT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 플랫폼 분야는 크게 동영상 플랫폼 ‘두비두’와 음악 플랫폼 ‘지니뮤직’, 웹툰 플랫폼 ‘케이툰’으로 압축된다. 그리고 이를 아우르는 것이 인공지는 TV 기가지니다. 음성인식 셋탑 형태의 기가지니가 동영상, 음악, 웹툰, TV 등을 아우르는 플랫폼으로써 기존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하는 상위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KT는 두비두의 강점으로 간편한 비디오 콘텐츠 제작, 글로벌 비디오 커머스, 다양한 수익구조, 관심분야 비디오 큐레이션, 영상에 나온 상품바로 구매 등 5가지를 내세움. 사용자가 두비두에서 상품에 대한 동영상을 편집하고 상품정보를 업로드하면 동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상품소개와 Buy(구매)버튼이 나온다. 동영상 제작자는 동영상 조횟수에 따른 광고수익뿐 아니라 동영상에 연결된 상품판매수익도 낼 수 있는 구조.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인 지니뮤직은 최근 경쟁사인 LG유플러스와 협력하며 사업 영역을 넓힐 전망. LG 유플러스와의 협력을 통해 KT 입장에서는 LG유플러스의 고객 확보가 용이해짐.  
   웹툰 플랫폼인 ‘케이툰’은 중국 진출을 도모하고 있음.  
   - IPTV  
   KT는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등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IPTV 시장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VR을 활용한 쌍방향 놀이학습 서비스 ‘TV쏙”이다. 사용자가 TV에 직접 출연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이버 VR’ 기술을 활용했다. IPTV와 연동한 인공지능 서비스인 ‘기가지니’도 있다. 기존 AI 비서가 음성인식 스피커인 데 반해 기가지니는 TV를 통해 귀뿐만 아니라 눈으로 즐길 수 있는 서비스다.  
   - 기가지니(GiGA Genie)  
   세계 최초 인공지능 TV이다. 기가지니는 세계 최초로 IPTV와 인공지능의 융합으로 가족 생활의 중심인 TV와 연계해 홈 비서 기능을 제공한다. 스피커, 카메라 등 똑똑한 기능을 갖춘 새로운 IPTV 셋톱박스의 이름이자 AI 기반의 홈 비서 서비스를 가리키는 ‘기가지니’는 KT 융합솔루션 브랜드인 기가와 요술램프 요정 지니를 결합한 이름이다. 기존 AI 스피커가 음성인식 위주의 ‘청각’에 초점을 맞춘 것에 비해 ‘기가지니’는 스피커와 함께 TV 연동과 카메라 내장으로 ‘시/청각’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셋톱박스 대신 기가지니 단말을 TV에 연결만 하면 TV를 중심으로 한 홈 인공지능 서비스가 완성된다.KT는 기가지니의 음성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원거리 음성인식 기술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어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했다. 국내 최초 TV 대화기술과 자연어처리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기가지니와 사용자간 지능형 대화가 가능하며, 딥러닝 플랫폼을 기반으로 기가지니의 음성인식 및 대화 기술은 점차 진화해 간다. 제공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올레 TV, 지니뮤직 등과 연동되는 ‘미디어 서비스’  
      ex)올레 TV, 지니뮤직 등
   2. 일정관리와 일상생활을 돕는 ‘AI 홈 비서 서비스’  
      ex) 일정관리, 음식배달, 택시포출 등
   3. 각종 홈 IoT 기기를 제어하는 ‘홈 IoT 허브 서비스’  
      ex) 도어락, 홈캠, 실내공기, 가스밸브 IoT 제어 등
   4. 음성 및 영상통화 기능을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ex) 음성통화, 영상통화 등

KT는 연간 120만에 이르는 IPTV 가입자를 기반으로 ‘기가지니’를 가정생활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잡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음성인식, 감성대화 등 기술 향상과 함께 전문 정보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는 2차 고도화 계획을 갖고 있다. 향후 KT는 에너지, 자동차 등 다양한 서비스에 ‘기가지니’ 플랫폼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능형 네트워크 인프라 및 빅데이터 핵심 ICT 기술과 함께 기존 5G 및 IoT 얼라이언스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설 계획.

1. **기업 공공가치 향상**ICT 인프라 개선뿐 아니라 경영 혁신, 신사업 개발 등 통합적인 컨설팅으로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을 성장시키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진 한다는 목표를 갖고잇다.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공동창조 생태계의 가치를 구현하는 방향. 공동 사업이 가능한 유망 벤처 · 중소기업 발굴 프로그램을 진행해 스타트업과의 협력과 지원을 강화한다. 선발된 스타트업은 연구개발은 물론 특허출원,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홍보 비용으로 기업당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대다수 기업들이 ICT 솔루션에 한정한 고민보단 경영 전반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부분에서 착안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어오던 B2B 컨설팅도 기존의 ICT 컨설팅과 더불어 종합컨설팅도 추진하고 있다. 기업 사업부문에서 단순 상품 판매, ICT 솔루션 컨설팅뿐만 아니라 고객가치 우선의 종합 컨설팅 영업으로 승부를 걸고 기업의 체질까지 개선해주겠다는 것이다. KT는 대한민국 통신 130년의 역사를 꾸려온 기업으로서의 노하우까지 기업 고객에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 및 전략적 가치 극대화로 새로운 B2B 영업 기회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로서 기업 고객들과 함께한다는 계획이다.  
   KT는 그간 ICT 솔루션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ICT 솔루션을 통한 경영 전반에 걸친 혁신을 원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중소 · 중견 기업일수록 이러한 니즈가 강했다. 이에 KT는 보유한 자원과 역량 기반으로 인사, 재무, 교육, 마케팅 등 경영 전반에서 고객의 고민을 진단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KT의 경영혁신 노하우까지 전달한다. KT는 고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컨설팅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기업의 니즈에 맞는 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해 경영전략, 마케팅, 영업·CS, 인사·조직, 재무·회계, 운영 혁신 등 총 6개 분야로 나누어 종합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ICT 컨설팅에 한정하지 않았던 차별적인 종합컨설팅을 통해 고객 맞춤형 IT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었고 추가 수익이 창출되기 시작했다. 고객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KT가 IT 솔루션 도입을 제안할 수 있었고, 이는 신규 매출로 이어졌다. 또한 컨서링 이 후 다양한 형태의 제휴/협력으로 장기고객으로 관리가 가능해졌다. 컨설팅 산업도 전략, 프로세스, IT 부문으로 나눠 경쟁하던 형태에서 점차 서비스가 혼재되어 있는 컨버전스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조직의 문제도 단편적 관점에서는 이제 해결이 불가능하고 복합적 해결 방식이 필요해졌기 대문이다. 이러한 점때문에 KT에서도 단편적인 ICT 컨설팅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의 체계적인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공공 클라우드  
   KT가 공공 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KT는 지난해 10월 정부 주도의 공공 클라우드인 ‘G-클라우드’의 첫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올해 2월 헌법재판소에 이어 현재 다양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 협의 중이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민간시장을 중심으로 확대됐지만,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14년 5000억원 규모였던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올해 2조원 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지난해 10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국내 첫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을 획득하고, ‘KT G-클라우드’로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다. KT는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 전담 컨설턴트 조직을 구성했다. KT G-클라우드는 서버를 공공기관 전용으로 독립시키고, 다른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클라우드와 완전히 분리한 서비스로, 퍼블릭 존(Public Zone)과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프라이빗 존(Private Zone)으로 나뉘어 보안을 강화한 구조다. KT는 이를 통해 올해 2월 헌법재판소에 KT G-클라우드 기반 재해복구센터를 개소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다른 기관에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했다.  
   - 상생협력펀드  
   KT가 중소 · 벤처협력사들과 상생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상상협력펀드’를 조성했다. KT는 9월부터 시중보다 낮은 1~2%대 금리로 130여개 중소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자금지원뿐 아니라 기술과 영업 비밀보호 솔루션, 연구개발 인프라 등도 지원한다.
2. **재난안전**재난안전망(PS-LTE), 철도통합무선망(LTE-R),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통합적으로 연구·개발·검증 할 수 있는 공공안전망 기술검증센터를 서초구 우면동에 구축.  
   공공안전망별 핵심 기술들을 한 곳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는 국내 첫 테스트베드로 재난안전망, 철도망, 해상망의 코어 시스템과 기지국, 단말기, 계측기 등 공공안전망 핵심 장비들이 실제 환경과 100% 동일하게 구축돼 있다. 또한 망과 망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간섭을 예측하고 ‘기지국 공유(RAN Sharing)’ 등의 기술을 검증, 솔루션 개발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KT는 한공우주연구원의 한국혁 SABS(초정밀 GPS 보정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KASS 국내개발지상설비 장비제작 및 구축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는 국토교통부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과 최단경로 설정을 위해 추진하는 항공안전사업이지만, 재난안전 분야에 적용이 가능해 미래 유망기술로 꼽히고 있다.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이 개발되면 현재 30m 수준인 GPS 오차를 1~2m 수준으로 줄여 더 정밀한 위치 정보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KT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재난 상황 속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기술 개발에 한창이다. 이를 위해 KT는 통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지역의 인구를 분석, 맞춤형 재난대응 시나리오를 공동개발하고 재난 시 최적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건물의 화재 혹은 붕괴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 내 피해자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실내 측위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KT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도 통신 빅데이터의 재난대응 분야 활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로, 특히 일본 최대 이동통신회사 NTT도코모는 기지국 데이터를 분석해 지진 등 대형 재난 시 대피시설에 몰리는 인구 규모와 귀가 곤란자 수 등을 예측하고 대피 계획을 수립해 큰 효과를 본 적이 있다.  
   추가로 KT는 ‘드론 LTE기지국’과 ‘재난안전재킷’ 등 다양한 서비스 상품의 기술 고도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KT 융합기술원은 최근 드론 ‘군집비행’ 기술을 개발했는데, 드론에 GPS, 통신모뎀을 탑재해 1개 조종기로 여러 대의 드론 통제가 가능하다. 여러 대 드론에 GPS 경로를 입력하고, 운영자가 상황에 따라 원하는 위치로 개별 드론을 보낼 수 있다. 또한, 코오롱스포츠와 협력해 인텔의 NB-IoT 모듈을 등산용 재킷에 탑태, ‘IoT 세이프티 재킷’을 개발했다. IoT 세이프티 재킷은 등산과정 중 자발적 신고가 불가한 조난상황에서도 센서를 통해 조난자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감지, 자동으로 동작되도록 설계됐다.